

여가 생활에도 녹색 바람이 분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투어·에코투어는 세계적인 추세

녹색 여가 지향하는 그린·에코투어리즘

여가는 인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 성장이 국가의 주된 목표였던 시절을 지나 1인당 국민 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여가는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여가를 향유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여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여가의 본질에 가깝다.

낚시·사냥 등의 여가 활동이 자연을 소모하면서 즐기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한 여가라고 할 수 없다. 자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감상하고 체험하면서 보존하는 여가 활동이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가진 여가에 포함된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 재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온실 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 및 경제 활동에서 저탄소·녹색 성장을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시책을 마련중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지역 사회 붕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대안 관광·그린투어리즘·에코투어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Green-tourism)은 프랑스에서 녹음이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녹색 관광이라 부르면서 시작됐다. 유흥과 위락 중심, 대규모 시설 의존형의 대중 관광과 다르게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고, 농촌 체험·자연 관찰 등 풍부한 체험 테마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 정책을 펴왔다. 우리나라에도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선진국형 그린투어리즘(녹색 농촌 체험 관광)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은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과 여행 문화를 말한다. 여행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보호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관광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전통 문화도 포함되는데, 2000년 이후 새로운 관광 형태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에코투어리즘에는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소규모 그룹의 여행, 자연 보호와 지역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의, 보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관광 이익의 환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민박 마을·휴양 단지 등을 조성해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뒤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녹색 여가는 친환경적 개념 고려

녹색 여가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생태 관광·농촌 관광 등과 같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체험하는 자연친화적 관광 형태이다.

둘째, 관광 자원 개발 시 생태 및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공사 시행 그리고 화석 연료의 소비를 최소화

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 자전거·도보 여행 등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 변화와 녹색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기후적 지속성 추구하는 것으로 보존(환경), 효율성(경제), 형평성(사회), 저탄소(기후) 개발 원칙이다.

녹색 여가는 국내외적 추세와 발맞춰가는 일종의 소비자 실천이다. 여가 환경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이를 자각하고 소비자의 개별적 여가 행태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회적 반응도 중요하다.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대규모 방문객이 집중돼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피해를 주며, 대규모 시설 투자 위주로 추진된 반면 프로그램이 부실한 경우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남긴다.



보신 관광 등 불건전 프로그램 거부해야

녹색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겠지만 여가 활동의 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신 관광·쇼핑 강요 등 불건전한 관광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거부해야 할 것이다.

녹색 여가는 자연 지식과 생태적 감수

성을 배우는 생태 탐사나 생태 기행, 주말 농장, 휴양림이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등의 친환경 활동도 포함된다. 쓰레기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민감한 자연 생태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 교통 이용하기, 낚시·사냥·산림 훼손 등 자연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역할도 중요하다. 세면 및 샤워용으로 사용된 물을 정화해 변기용으로 이용하는 중수조 시설, 태양열을 이용한 저탄소 리조트 시설,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리조트와 같은 자연 순응형 디자인 도입, 지열을 이용한 생태호텔, 재생 종이를 사용한 여행 안내 책자 제작, 여행 안내서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환경의 보호 가이드라인 소개와 탄소배출량 표시, 관광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 개발과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 글/송민수<한국소비자원 법정책임연구원>

녹색 여가 사례

유형	분류	종류	사례
자원 유형	생태관광자원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갯벌, 습지, DMZ, 수목원 등	금단의 땅 생태계의 보고-DMZ 생태관광상품, 공룡을 찾아가는 시간여행-고성공룡박물관 등
	농촌관광자원	팜스테이(Farmstay), 농촌테마공원 등	신론리 '근삼촌 농촌체험 여행' 가족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 여행 등
	문화관광자원	템플스테이, 민속마을, 천연기념물, 명승지 등	나를 찾아가는 여행-템플스테이, 종택·고택 숙박 체험 등
	생활관광자원	슬로시티, 저탄소 도시관광	느림과 여유 미학-슬로시티 담양 삼지천마을, 신안 증도, 완도 청산도, 장흥 우산리·반월리 마을, 하동 악양면 탄소제로 도시-마스다르 시티 등
활동 유형	저탄소 교통 수단	자전거 여행, 도보 여행, 대중교통 등	자전거 : 느긋하게 일주하는 경주일주, 당일치기 섬 여행 웅진 신시도 여행,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전북 고창, 정약용 남도 유배길 전남강진·영암, 소백산 자락길 경북 영주·충북 단양 도보 :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문화생태 탐방로 등 대중교통 : 기차타고 떠나는 와인인산트레일
	유기농 슬로푸드 및 로컬푸드	슬로푸드 여행, 음식체험여행 등	안동 전통음식 체험하는 푸드스쿨, 평창군 가족사랑 산나물 트레킹
녹색 기술 유형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에코빌리지 등	풍력발전단지-경북 영덕군 등
	저탄소 리조트 및 숙박 시설	그린글로벌 환경인증마크	호주 코란코브리조트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유비쿼터스, IT 기술과 연계 PDA 등	전주 한옥마을 유비쿼터스 관광 등

